

- 주요 뉴스: 미국 8월 생산자물가 상승률, 전월비 둔화. 공급 병목 개선 신호도 발신
 -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ECB 주요 정책금리는 연말에 중립 수준 도달 가능
 - 국제에너지기구, 내년 세계 원유수요 전망을 상향. 중국 봉쇄 조치 완화를 반영
 - 일본 재무상, 환율의 과도한 변동을 우려. 장기화 시 필요한 대응에 나설 방침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인플레이션 불안 속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소 강화

주가 상승[+0.3%], 달러화 약세[-0.2%], 금리 약보합[-0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전일 폭락에 따른 저가매수 유입 등으로 상승 마감
유로 Stoxx600지수는 광물 및 유틸리티 관련주 약세 등으로 0.9%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일본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 등이 영향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1%, 1.1%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8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의 전월비 하락 등이 배경
독일은 역대 성장둔화 우려 지속 등으로 1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390.2원, -0.7원) 보합, 한국 CDS 하락

		9/14일	9/13일	전일대비			9/14일	9/13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946.0	3,932.7	0.34%	국채 금리 10y	미국	3.40%	3.41%	-0bp
	유럽	417.51	421.13	-0.86%		독일	1.72%	1.73%	-1bp
	중국	3,237.5	3,263.8	-0.80%	CDS 5y	한국	32bp	33bp	-1bp
	일본	27,819	28,615	-2.78%		중국	72bp	72bp	0bp
	한국	2,411.4	2,449.5	-1.56%	위험 지표	EMBI+	-	418	-
환율	달러지수	109.65	109.82	-0.15%		VIX	26.16	27.27	-4.07%
	유로화	0.9981	0.9970	0.11%		WTI유	88.48	87.31	1.34%
	엔화	143.08	144.58	1.05%	원자재	구리	354.6	358.1	-0.99%
	위안화	6.9618	6.9305	-0.45%		금	1,697.3	1,702.2	-0.28%
	원화	1,390.9	1,373.6	-1.24%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8월 생산자물가 상승률, 전월비 둔화. 공급 병목 완화 신호도 발신

- 해당 생산자물가(PPI)는 전년동월비 8.7% 올라 7월(9.8%) 대비 낮은 수준. 월간 상승률은 -0.1%로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근원 PPI의 경우도 연간 및 월간 상승률이 모두 전월비 하락(각각 7.7%→5.6%, 0.3%→0.2%)
- 이번 결과는 휘발유 가격 하락 등에 기인. 또한 근원 PPI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공급 병목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것으로 판단. 특히 PPI 연간 상승률은 2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1년 만에 최저
- FWDBONDS의 Christopher Rupkey 이코노미스트는 8월 PPI 상승률의 둔화가 공급 병목 완화 때문이라는 사실이 긍정적이라고 진단.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PPI 상승률의 둔화는 향후 소비자물가(CPI)에도 영향을 미쳐 인플레이션 둔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공한다고 언급
- Citigroup의 Andrew Hollenhorst는 PPI 상승률 둔화로 CPI 상승 압력도 약화되면 연준은 향후 인플레이션 관련하여 다소 안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다만 현행 연준의 금리인상 경로는 유지될 전망
- 한편 LPL Financial의 Jeffrey Roach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문제의 핵심은 서비스 가격 상승에 있다고 지적하고, 노동시장의 공급부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고물가 상황은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고 평가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JPMorgan, 9월 FOMC에서의 1.00%p 인상 가능성은 낮은 편

- Michael Feroli 이코노미스트는 9월 1.00%p 인상이 이루어질 확률은 1/3 미만이며, 목적지가 다가오는데 속도를 높일 필요는 없다고 설명. 만일 1.00%p 인상한다면 이는 최종 목표가 5.00%라는 의미인데, 현실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

■ IMF 총재,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단호한 대응이 필요

-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고물가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우려. 한편 유럽에서 금년 겨울 날씨가 추우면 경제 여건 악화로 사회적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

■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ECB 주요 정책금리는 연말에 중립 수준 도달 가능

- 드 갈로 총재는 중립금리가 대략 2% 내외로 추정되며, 연말에 이에 도달할 때까지 질서 있고 과감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발언. 한편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 정상화 종료 시점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첨언
- ECB의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9월 0.75%p 인상은 최근 경제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 다만 예상하고 있는 최종 금리수준이 추가적으로 상향되지 않는다면 향후 금리인상 폭은 점차 감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
- 사이프로스 중앙은행 콘스탄티노스 헤로도투 총재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에 ECB 정책위원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아직 금리의 최종 목표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언급

■ 영국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월비 하락했으나 매우 높은 수준 유지

- 해당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9.9% 올라 전월(10.1%) 및 예상치(10.2%) 하회. 이는 휘발유 가격의 하락 등에 기인.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 정점은 10월 11% 내외를 기록하면서 지날 것으로 예상. Capital Economics의 Paul Dales는 영란은행이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

■ 국제에너지기구, 내년 세계 원유수요 전망을 상향. 중국 봉쇄 조치 완화를 반영

- 금년 4/4분기 수요는 일일 70만배럴 증가한 후 내년에는 일일 210만배럴 증가할 것으로 추정. 금년 말 일시적 경기둔화가 끝나고, 내년 중국의 코로나 팬데믹 관련 봉쇄 조치가 완화되면서 글로벌 원유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

■ 일본 재무상, 환율의 과도한 변동을 우려. 장기화 시 필요한 대응에 나설 방침

- 슌이치 재무상은 과도한 엔화 환율 변동이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 또한 마사토 간다 재무차관 역시 엔화 환율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으며, 만일의 경우 아무런 제약 없이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언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9/15 현지시각 기준)

- 미국 8월 소매매출, 9월 2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8월 수입물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경제, 인플레이션보다는 인적자본 부족이 더 큰 문제 - 블룸버그

(Inflation? The Workforce Is the Bigger Problem)

- 현 고물가 상황은 과거의 수요와 공급 관련 잘못된 인식을 재점검할 수 있는 계기. 통상적으로 소비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해도 노동을 포함한 공급도 동시에 증가할 수 있어 인플레이션 압력의 급격한 증가는 어렵다는 것이 전통적 견해. 하지만 미국은 인적자본 부족 심화로 이와 같은 인식의 재정립이 요구
- 구체적으로 노동자의 기대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했고, 과로 등으로 인한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이 크게 증가. 또한 1인당 노동생산성 역시 저하. 그 동안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통화 및 재정정책의 조정을 거론했다면, 지금은 이와 같은 인적자본 부족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가 필요

■ 미국 채권시장, 좀비기업 파산 우려는 과도한 편 - Financial Times

(Don't fear corporate zombies)

- 최근 좀비기업의 대규모 파산으로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그러나 명목상 상장기업의 13%가 좀비기업에 해당되나, 대부분은 급성장 중인 기업. 실제 좀비기업은 상장기업의 4%이며, 이들의 순부채 규모도 2000억달러에 불과
- 또한 현재 미국의 고수익채권 시장에서 이들 좀비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비중은 2%로 높지 않은 수준.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이미 상당수의 기업이 채무불이행을 선언. 골드만삭스는 고수익채권 시장이 대규모 좀비기업 파산에 직면한 것은 아니며, 이들 기업에 자본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지도 않았다고 평가

■ 미국 경제, 철도노조 파업 시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될 우려 - WSJ

(Possible Rail Stoppage Could Fuel More Inflation)

■ 연준, 과거 금리정책 오류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 - Financial Times

(The Fed must avoid Volcker's mistake on inflation)

■ 유럽 에너지 위기, 에너지 가격 상한제 이외에 추가적 조치가 요구 - Financial Times

(Energy crisis: EU should seek quick wins while negotiating price cap)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